

기간 지나도 회생채권 신고, 부적법 아니다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하는 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그대로 실권된다.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어지는 신고 기간이나 권리 행사의 시점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진 회생채권 신고는 모두 부적법 한 것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채권자가 회생절

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어떨까?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 진행 여부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고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회생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취지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하자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견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데,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적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 지연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놓인 채권자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본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무조건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하게 된 사유에 따라 충분히 법원에 채권신고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 즉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은행 이익의 착시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4대 시중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했다.

표면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 이면엔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연체율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0.28%→0.34%, 우리은행은 0.30%→0.36%로 뛰었다. 신한·하나은행도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방향을 틀면서 연체 증가의 중

심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총대출 연체율보다 0.03%포인트 높고, 신한·하나·우리은행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담보가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은 다르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익의 착시'를 낳을 수 있다. 경기보다 앞선 대출 확장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은행의 이익이 늘수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생산적 금융'이란 명분 아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실적을 위한 선택이 되어선 안

된다. 자금이 흘러가야 할 곳은 여전히 회복의 숨을 고르고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다.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품질'이 지금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권이 진짜로 보여줘야 할 성과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다.

이익의 곡선 뒤에서 조용히 오르는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기와 금융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은행의 진짜 실적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이익'보다 '내실'이, '확장'보다 '균형'이 중요할 때다.

/yu1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1월 3일 (음 9월 14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8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2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 84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소

37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49년생 신세진 사람이 빛 갚으러 온다. 61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73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만 무성하다. 85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토끼

3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0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온다. 62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4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6년생 불평보다는 부족함을 채우는 실력을 공부.

 토끼

39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51년생 이직계획은 보류해야. 63년생 경력을 믿고 고만해야 부처님 75년생 집 안 청소를 주변 환기를 해보자. 손바닥처럼 알은 수준이다. 87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면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을 것이다.

 양

40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52년생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공과 사를 구별해야. 64년생 이성 문제로 시달릴. 76년생 하늘이 알아주니 남들도 알아 복을 받는다. 88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뱀

41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옮겨갈 수는 없다. 53년생 정신일도 하 사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5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가 다친다. 77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 대비하도록. 89년생 산행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말

42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는데. 54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로 따돌리지 마라. 66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8년생 물량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각정이 없다. 90년생 잔소리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양

43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5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7년생 선분은 이직은 글썽. 79년생 자연에서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1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원숭이

44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6년생 이제 맑은 바 일을 열심히 하자. 68년생 기획실로 발령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0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2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 데 항상 있는 일.

 닭

45년생 부부끼리 잠자는 모습도 싫어진다. 57년생 술자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69년생 합리적 비판에 예민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81년생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93년생 이직은 객관적으로 실천해야만.

 돼지

46년생 힘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8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0년생 기술 쪽에 재능이 있다. 82년생 부모님께서 노년생들의 원앙지계(怨鴦之契)이다. 94년생 자신이 근면하도록 해야 세상을 타히지 않을 것.

 돼지

47년생 남녀노소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59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71년생 운이 있으니 주시보다는 청약을. 83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들을. 95년생 슬픔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김상회의四季

이룸, 동지 기도



동지는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날이면서 동시에 다시 길어지는 낮을 통해 새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다. 예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해진 것이 동지 기도다. 조상들은 동지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지나온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의 서원을 세우는 의미 깊은 의식으로 특히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에게 새해에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가정에서는 팔죽을 쑤어 잡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팔의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므로 문설주나 마당에 팔죽을 뿌리며 동지 기도를 겸하곤 했다.

불교 사찰에서는 동지 무렵 특별한 법회를 열고 대중이 함께 기도를 올렸다. 대웅전 앞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한 해의 무사안녕과 새해의 평안을 비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길어지며 양의 기운이 힘을 얻으므로 이때 기도를 올리면 신령의 가호가 크다고 믿었다. 또한 동지는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인식되어서 지난해의 액운을 털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계기로 삼았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서원이란 부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시험에 합격하도록 힘쓰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천과 다짐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불교에서는 동지 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으니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 3650

컬러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6	8	1	2	9	8
8	2	1	9	8	9	6	7
6	7	8	1	2	9	8	9
8	9	8	9	7	6	1	2
1	9	7	2	1	9	6	8
9	8	9	6	8	7	2	1
7	1	6	7	9	8	9	7
7	6	2	9	7	8	1	9
7	8	9	8	1	2	9	7

7	9	8	1	7	8	2	6	9
9	2	1	6	7	9	8	7	8
8	1	2	7	9	8	6	9	2
7	8	9	2	6	7	9	8	1
9	6	7	8	9	1	2	7	1
1	9	8	9	2	6	8	7	7
8	7	2	8	9	1	7	9	6
6	7	9	8	7	2	1	8	9
2	8	6	7	1	7	9	8	9